

4 뉴스

중앙동아리 ‘투지’ 등록취소 무효 결정

노윤지 기자 yoonji2022@khu.ac.kr

【국제】고체로켓 제작 동아리 ‘TUSI’(투지)의 등록취소 무효가 결정됐다. 투지는 이번 대표자 정기회의의 불참으로 그동안 누적됐던 징계에 주의 1회가 추가되며 등록취소 위기에 놓였었다. 중앙동아리연합회(중동연)가 갑작스럽게 대표자 정기회의의 날짜를 공지해서다.

대표자 정기 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린다. 중동연 회칙 제34조 1항에 의하면 대표자 정기회의는 본회 회장이 최소 7일 전 학생회관 게시판과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중동연은 7월 정기회의의 날짜를 연기했고 이를 회의일 6일 전에 공지했다. 그리고 연기된 회의 날짜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후 중동연은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서면으로 대체해 회의를 진행한다고 당일인 7월 28일에 공지했다. 그리고 불참 동아리에게 주의를 부여했다. 갑작스러운 공지에 16개 동아리가 불참했다.

중동연 회칙 제114조 4항에 의하면 주의 2개 누적 시 경고 1개가 되고, 106조 2항에 의하면 경고 2번 누적 시 자동적으로 동아리 등록취소가 된다. 투지는 이번 7월 정기 대표자 회의 불참으로 주의 1회가 추가돼 총경고 2회로 지난달 20일 등록취소됐다.

투지는 이를 소명하고자 이의제기 기간에 임시 대표자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하지만 축제 기간과 겹치

는 탓에 절반 이상의 동아리가 불참 의사를 밝혔고, 중동연은 임시 대표자 회의를 부결 처리했다. 등록 취소된 투지 대표자를 대신해 동아리 만화통신 회장이 부결된 임시 대표자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중동연은 이의제기 기간이 이미 종료됐으므로 추가적인 소명과 회의는 없다고 공고했다.

이에 투지는 학생지원센터에 중재를 요청했고 중동연과 논의를 진행해 합의를 이뤘다. 합의 사항은 7월 대표자 회의에 참여한 동아리 대표자 33명을 대상으로 ‘7월 대표자 회의 의결 사항 유지 및 불참 징계 무효’에 대한 비대면 의결을 진행하자는 것이었다. 투표는 지난 4일 종료됐으며 투지의 등록 취소는 무효로 결정됐다.

투지 김요한(원자력공학 2021) 부회장은 “학생지원센터의 중재 하에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중동연 권용욱(식물환경경신소재공학 2019) 회장은 “정기회의의 날짜를 이례적으로 미룬 것은 회의 날짜가 활동보고서 및 기본지원금 사용내역서 제출기한과 겹쳤기 때문이었다”면서도 “의도와 별개로 1차 대표자회의 의결사항이었던 정기회의의 날짜 공지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인정한다”며 사과했다. 이어 “일주일 동안의 이의제기 기간 동안 TUSI가 제기한 2개의 문서에 모두 답변했으며 충분한 상황설명을 마친 상태였다”며 “이의제기 기간 내 최선을 다했음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육사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발표에 사학과 비상대책위원회는 대자보를 게시하며 ‘홍범도장군 흉상철거반대결의안’ 채택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홍범도 흉상 철거는 ‘역사 농단’

고도희 기자 kdhistry@khu.ac.kr

【서울】우리학교 사학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캠퍼스 청운관과 문과대학 게시판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반대하는 역사학도들의 공동 성명〉 대자보를 게시했다. 이는 한양대학교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단체 ‘독립로드’의 공동 성명 추진에 우리학교 사학과 비대위가 학생회 단위로 참여하면서 이뤄졌다.

대자보에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사안은 단순히 육군사관학교(육사)와 국방부만의 문제가 아니

며 이 모든 사태를 중재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이 묵인하고 있음을 비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대자보 작성자 일동은 ‘홍범도장군 흉상철거반대결의안’ 채택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대자보를 게시한 민선영(사학 2021) 비대위장은 “사학과 학생으로서 육사의 홍범도 흉상 철거 문제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홍범도 장군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며 당시 독립운동은 다양한 사상을 바탕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민 비대위장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지금의 현실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학과 학생회로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대자보를 게시하게 됐다”는 계기를 설명했다.

한편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은 지난 8월 말 육사가 교정 내 독립운동가 5인(홍범도, 지청천, 이회영, 이범석, 김좌진)의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히며 시작됐다. 독립운동 기념단체의 반대로 육사는 홍범도 장군 흉상만 교외로 이전하겠다고 계획을 변경했지만 철거 이유를 반박하며 이전 결정에 반발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반대하는 역사학도들의 공동 성명>

육군사관학교가 교내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사학은 육사 교정 내에 설치된 독립전쟁 영웅 5인(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이회영)의 흉상 철거였다. 그러나 거센 국민적 반발에 부딪히자,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 철거하여 학교 밖으로 끌어내기로 한 것이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주장하는 이들은 평생 의병장으로, 독립군 사령관으로 활약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홍범도 장군에게 갖은 오욕을 서슴치 않고 있다. 철 지난 ‘색깔론’을 들이밀며 그가 마치 동족을 학살한 주범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종실 국방부 장관은 “공산주의 경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망언과 함께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를 정당화했다.

2018년 국방부는 육사 교정 내에 독립영웅 5인의 흉상을 건립하면서 “독립군을 우리 군의 뿌리로, 신홍무관학교를 육사의 모체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니 언제 그랬느냐는 듯 “육사의 정신적 뿌리는 국방경비사관학교”라고 말을 바꿨다.

국방경비사관학교(남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는 1946년 5월 미군정에 의해 설치된 사관학교로, 초대 교장 이형근 장령(소령)은 일본군 대위 출신 전일본헌병위자다. 국방부는 우리 육사의 정신적 뿌리를 독립군을 양성하던 신홍무관학교가 아닌 미군정이 세우고 일본군 출신 전일본파가 교장을 맡았던 학교에 있다고 본 것이다. 심지어 홍범도 장군이 흉상을 철거한 자리에 전일본헌병위자 백선일의 흉상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추종한 소문까지 돌고 있다.

“몰이커 남한의 형편을 보면 그것도 아릅답지 못하니 전일본파의 불국은 곳곳에 발호하고 있다. 민족반역자의 세력은 군부 방면에서 벌써 뿌리를 깊이 박았다. 그들은 표창까지 받는다.” - 윤일민, ‘동지동무로 일한다’ (1947.12.20.)

76년 전 전일 군인들이 군부를 장악한 현실을 비판한 독립운동가 윤일민의 절규가 헛가게 생성하다.

단순히 육사의 국방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 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 해군 장수함 ‘홍범도함’의 이름을 바꿀 수도 있음을 시사했으며, 국가보훈부 역시 홍범도 장군에게 수여된 건국훈장의 서훈 취소까지도 검토 중이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사태를 중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수수방관하며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윤석열 정권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속하고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선열들의 독립운동을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인 것이다. 그리고 홍범도 장군은 독립운동사를 수놓은 영웅 중 한 명이다. 그런 홍범도 장군을 모독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뿌리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태다 다음 세대.

국가보훈부는 지난 7월 철육 다부동에 백선일의 거대한 동상을 세우더니 국립대전충원엔 안장된 백선일의 인장자 정보에서 ‘정일반민족행위자’라는 기록을 지우는 반행을 저지른 바 있다. 그런데 이제는 독립영웅 홍범도 장군을 민족반역자로 만들고자 획책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역사농단’은 언제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우리 역사학도들은 독립투사들이 피로 쓰고 선학들이 밟으로 얻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독립운동사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이러한 현실 앞에 침묵하지 않겠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이런 폭거를 ‘역사에 대한 쿠데타’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국회는 ‘홍범도장군흉상철거반대결의안’을 조속히 채택하라!
2. 윤석열 정권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계획을 백지화하고 어떤 사태를 야기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2023년 9월 17일
역사를 전공하는 대학·대학원생 일동

Ch

대학주보

+

대학주보 카카오톡채널이 생성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고 경희대학교소식 받아보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 → QR코드 스캔 → 채널 추가

kakaotalk